

이재명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전북 르네상스 열겠다” 김동연 후보 전북서 당원 간담회

D-39 6.3 대선

전북 방문 호남 공약 발표
AI·농생명 산업 동시 육성
전주 3금융 중심지 조성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 지역 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 서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 속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등의 강한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호남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국가의 보루(竊想湖南國家之保障: 절상호남국가지보장)로 AI, 미래 모빌리티, 금융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육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 새만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전북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 지역 경선 기간을 맞아 24일 전북자치도 새만금 33센터 등을 방문해 전북지역 핵심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성장을 꾀했다.

새만금 관련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개방) 확대해 생태계 복원과 사회적 합의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도 다짐했다.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 영농형 태양광 확대해 기후, 식량 위기에 대응에 호남 중요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생산, 가공, 수출이 연결되는 수산물러스터 조성, 해양식품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는 K-푸드 수출거점으로 성장, 제조와 수출, 체험이 융합된 K-푸드파크 조성, 김제 스마트팜 혁신벨

리, 전북 서남대 국립 의대 설립,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직접 양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남원·장수·무주·구례 등 전북·전남 동부권은 치유 관광과 친환경 농업 중심으로 육성, 유기농 식품, 고령지 특산물, 생태·전통문화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농촌 관광과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든다.

호남권에 좁은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까지 있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준다.

서해선 철도 고속화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 새만금, 목포까지 단계적 연결 추진,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광주~대구 달빛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도 지원하겠다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에코산업 메카로
농업·생명·기후에 AI 더해
하계올림픽 TF 구성

“당원동지와 함께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24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다.

김동연 경선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과 간담회를 통해 “전북을 에코산업 메카로 육성해 새로운 전북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골어 김 경선후보는 에코산업 전략으로 A Agriculture(농업), B Bio(생명), C Climate tech(기후 산업) ‘ABC’를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더해진 새로운 농업의 발전 전략을 전북에서 만들고 싶다”며 “바이오 대기업 등을 유치해 생명산업 중심지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 새만금 사업 추진·하계올림픽 유치지원의 약속도 이어졌다.

김 경선후보는 “과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 2030년까지 70%대로 끝



김동연 후보

어울려야 할 사업 진행률이 윤석열 정부 이후 멈춰 있어 앞으로 적극적 투자와 함께 새만금만의 핵심 건설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김천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 횡단 고속도로, 서해안 광역철도 군산~목포 구간 신설 등의 추진도 내세웠다.

아울러 “대통령이 되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 후보는 “제가 국민 통합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
전주국제영화제 무료 운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수소전기버스 5대를 투입해 하루 10차례 총 500회에 걸쳐 전지역 등 주요 코스를 운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행안부 분쟁조정위 결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6.6km)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km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김제시는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공사 완공되어 2024년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상정되었고,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귀속이 결정됐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이다. 3.9만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고, 주거·산업·교육·관광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10월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서도로 관할결정과는 다르게 스마트 수변도시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전 상정 이후 두 번째 심의만에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

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연결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올 하반기 수변도시 첫 분양을 위한 등기, 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도 적극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2면에서 계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 노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 중인 자사 수소전기버스를 무료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2025년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돕는다.

특히,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트럭 등 미래형 상용차를 생산하는 회사 특성을 살려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열흘 간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수소버스를 셔틀버스로 지원함으로써 수소시범도시 전주 위상에 걸맞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영화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를 위해 고속상급급 수소전기버스 5대를 투입해 하루 10차례씩 총 500회에 걸쳐 전지역 등 주요 코스를 운행하면서 전주

국제영화제를 찾는 손님들을 행사장까지 실어나를 계획이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지원되는 수소버스는 2023년 4월 새로 출시된 최신형 모델로 고속형 대형버스급 중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정재근 기자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이 함유된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 특성상 엔진 구동 차량과는 달리 차체 진동이 전혀 없어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



전라북도지방법원 사회

제62회 법의 날

전북지방법원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제 1 부 회 장 이 삼 일

총무상임이사	김 용 빈	이 사	윤 석 주
재무상임이사	이 진	이 사	최 경 섭
공보상임이사	홍 민 호	이 사	추 김 환
인권상임이사	우 아 름	이 사	김 영 호
교육상임이사	강 호 석	이 사	김 대 호
법제상임이사	나 영 주	이 사	박 금 태
여성상임이사	진 태 희	이 사	김 완 수
군산상임이사	유 경 재	이 사	유 주 환
정읍상임이사	유 택	이 사	이 보 향
익산상임이사	최 환 석	이 사	곽 호 영
		이 사	박 기 봉
		이 사	김 용 신
		이 사	장 충 석
		이 사	최 해 욱
		이 사	박 수 연

제 2 부 회 장 이 민 호

이 사	강 원 표
이 사	주 우 리
이 사	박 심 미
이 사	김 은 강
이 사	최 경 환
이 사	송 도 희
이 사	김 민 규
이 사	윤 은 주
이 사	김 성 범
이 사	최 덕 문
이 사	하 현 환
이 사	홍 호 성
감 사	곽 영 수
감 사	김 진



회장 김학수

정성주 시장 “합리성 증명...분쟁유발 지양해야”

<1면에 이어 계속>

새만금신항, 남북도로 등 남은 매립지 역시 이와 같은 전체구도 및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적용한 관할결정이 필요하다. 전체 관할구도를 무시하고 억지주장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 개발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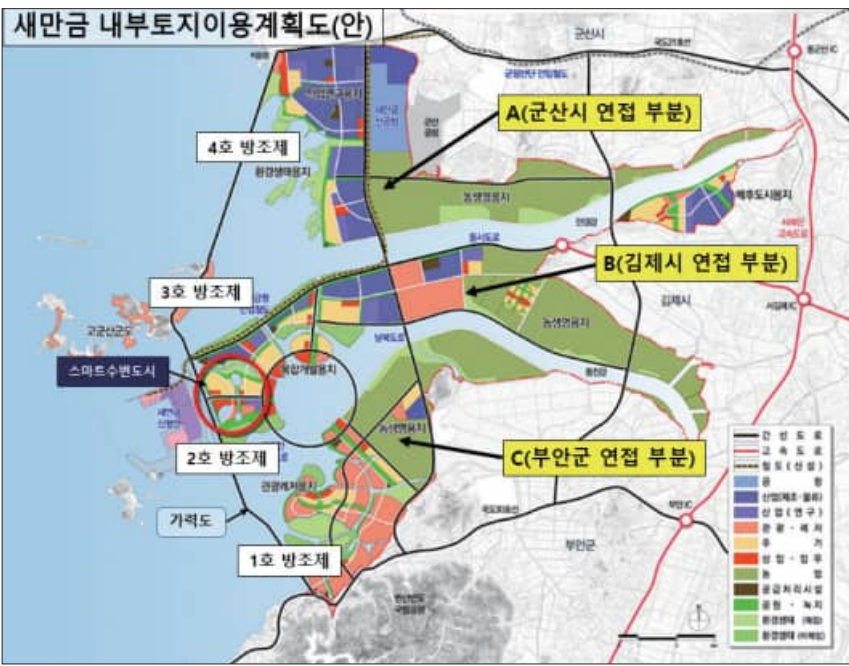
작년 8월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관할결정에 이어 최근 동서도로 및 수변 도시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매립지의 관할을 모두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나 부안군 입장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 편향적 결정만 내놓는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그간 군산시·부안군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립지 관할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異見)이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관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동안 군산 앞에 조성된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 앞에 잼버리 부지 등은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김제시는 대승적으로 관할결정에 협력했고,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이 결정됐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새만금지역에서 군산시와 부안군은 김제시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의 관할을 차지했음에도



위치도

<행정안전부 제공>

분쟁이 표면화되지 않은 까닭에 관할 결정된 사실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유독 김제시 연결구간에서 당연히 김제시로 관할귀속될 구간에 대해서만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반복되는 김제시 연결 매립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이번 스마트 수변도시를 모두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찔러보기식’ 억지주장에 대해 경종을 울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농생명용지

8개 공구 및 방수제 7개 구간에 대해 각각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으로 관할을 결정했다. 3개 시군의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분위 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관할 결정이다.

그러나 김제 앞에 바로 연결돼 조성된 ‘만경 6공구 방수제’ 구간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억지 논리 제기로 또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게 됐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연결지구내 생태관광용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진강 북쪽 방수제이다.

이번 상정된 만경 6공구 방수제를 제외하고도 새만금지역에는 8개의 농생명용지 및 7개의 방수제 구간이 김제

시, 군산시 및 부안군에 연결해 조성돼 있고, 관할결정 절차가 작년 4월부터 진행중에 있었다.

이번에 김제시가 농생명용지 등 4개 구간 12.1㎢를 확보한 것에 비하면 군산시는 1.8배, 부안군은 2.7배 정도 큰 면적이었지만, 아무런 잡음없이 군산시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됐다.

이상과 같은 경우로 지난 18일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는 ‘만경 6공구 방수제(5.4km) 및 가도제(2.8km)’에 대한 안건도 함께 상정됐고, 자치단체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김제시는 의견진술을 통해, 동진강의 북측 방수제인 만경 6공구 방수제는 부안군의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하며,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관할인 농생명용지 6-1공구와의 연결성,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상황, 농촌도시 조성 과 거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김제시 관할임을 강조했다.

그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먼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관영 도지사, AI 허브 등 정부추경사업 건의

국회 주요 인사 방문 5대 핵심사업 직접 설득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대응해 전북 핵심사업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주요 인사들을 연다라 방문하며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24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미래를 위한 5대 핵심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 산발 피해 복구, 인공지능(AI) 및 통상 산업 지원, 내수 진작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23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주요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임을 강조하며 △전북·경북 초광역 AX 활성화(30억 원) △전북 AI 신뢰성 혁신 허브 구축(30억 원) 등 AI 기반 미래산업 관련 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또 김지세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군산항 유지 준설(15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등 민생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강하게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곧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남은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 협력 강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 메가비전프로젝트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서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로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위한 전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각 부처 예산 안에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상황과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전북도자치도가 추진 중인 메가비전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가비전프로젝트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핵심 현안이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도는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반영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위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당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돼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와 유기적인 협

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성장 기반을 다져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정치권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대선 공약과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시군의장協, 양수발전소 유치 건의안 등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4일 진안고원산입지유원에서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등 지역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안건을 처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건의안’에 대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사업인 양수발전소를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진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

안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은 장수군과 진안군을 연결하는 지선 철도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해당 구간의 철도 신설은 동부권과 낙후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향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비 교통허브 조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실효성 정책 퍼 중소기업 살린다

3억 이차보전 경영 지원 스마트공장·혁신제품 육성 ‘수테크’ 등 혁신기업 뒷받침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고금리·고물가·소비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영안정 지원 △제조기업 고도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영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금(최대 연 3.5%)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8조 원 규모의 성장주기별 중소벤처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전담 매니저’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에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로사향을 해소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한 제조혁신 기반 확산,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안전시설 보강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청년이 유입되는 첨단 제조 생태계를 조성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수테크이다. 탄소소재 특화기업인 수테크는 전주시의 기술개발 연계지원과 행정적 밀착지원을 통해 탄소융복합소재 기반 ‘탄소트레드수출용’ 개발에 성공, 지난 3월 2025년도 제2차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제품은 도심 불투수층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기후대응형 보도블록으로, 기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국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수테크에 대해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전담 매니저 통한 현장 애로 해소 △조달청 혁신제품 진입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해 수테크가 제품 양산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이는 전주시의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가 현실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주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지역 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 24일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펼쳤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진청, 과학 발전 일조한 ‘실험동물’ 넋 기려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 24일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승돈 원장 추념사,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 농약 등록 평가 과정에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와 안점막 자극성, 피부감작성, 반복투여 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내분비독성, 유전독성 등을 동물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식용곤충, 다양한 농산물, 기능

성 소재 개발에도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 동물실험 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마련했다.

이승돈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토마토빨나방 방제 전략 민간 협력 구축

농진청, 방제기술 학술대회 국내외 사례, 개발 현황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한국곤충응용학회, 한국곤충학회와 함께 25일 강원도 홍천에서 ‘토마토빨나방 대응 방제 기술 개발 학술대회’를 가졌다.

토마토빨나방은 남미가 원산지지만 최근 국내에 들어왔다.

유충이 토마토 잎과 열매속으로 들어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문제 해충이다.

기존 방제법으로는 충분한 방제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방제 기술에 대한 개발 요구가 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해충·방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방제 사례와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토마토빨나방 방제 전략 구축 위한 연구 방향도 논의했다.

국내외 연구 동향으로는 국내 토마토 생산지 토마토빨나방 발생 현황 친환경 농가 토마토빨나방 관리 사례 토마토빨나방 유인 물질(페로몬) 교미교란제 국내 개발 현황 토마토빨나방의 살충제 저항성 발달 연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한전 전북본부, 상생 간담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전은 이우상 전력사업처장, 이승희 전력공급부장, 김

종은 배전운영부장, 팀장과 협회는 이재수 도회장, 최병인 부회장, 이길환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등 한전 협력회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에서 협력회사에 작업장의 철거

한 안전관리와 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전달하고, 협력회사는 운영상의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협회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오는 5월17일 개최되는 전북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등 한전 협력회사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기자

몽골신협, 전북지역 3조합 방문 경영노하우 터득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 몽골신협연합회 MOCCU·ARVIN DEM 신협 대표단(이하 몽골신협 대표단)은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라양노), 전주혁신신협(이사장 임승기), 삼례신협(이사장 김춘열)을 방문했다.

지난 22일 마련된 몽골신협 방문은 지난해 8월 전북신협 두손모아봉사단(단장 황민석)이 몽골신협연합회와 SCC신협 방문 후 방문으로 한국신협 경영노하우와 IT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전북신협은 자르갈란 에들렌 양로원을 방문해 구제리류 다섯 새끼와 기저귀 기부 등 약 200만 원 상당 물품을 증정과 함께 ‘외부 화장실 설치, 거주시설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몽골 허스 오양가 대안학교(몽골 탄광촌 소재)에서도 2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기부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몽골신협과의 상호 교류 협력에 힘썼다.

이날 8명의 몽골신협 대표단은 한국 전통문화의전당을 방문해 한지공예, 한복의상을 체험하고 도시형 조합인 전주중산신협과 농촌형 조합인 삼례신협을 방문했다. 이들은 조합원 유치전략과 적정금리설정 통한 손익관리, 문화센터 운영 등을 공유받았다.

또 전주혁신신협과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주시 만성동 소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지원

고도화·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30일까지 모집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

하고 바이오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개소를 발굴 지원했다. 이로 인해 수혜기업들은 전년 대비 매출 39% 증가, 신규거래선 45건 확대, 수출 약 10억원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 촉진 및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품제작 △국내외 인증 컨설팅 △기업성장패키지 지원(특히, 기술경영컨

설팅, 맞춤형교육, 홍보지원) △통합마케팅 등 기업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분사, 공장, 연구소 중 한 개 이상을 보유한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총 1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if.re.kr>) 알림마당(일반공고)을 통

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 담당자의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하고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로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시 폐기물시설부지 민간 매각, 시민단체 반발

시, 제3산단 부지 내 재시도 “환경 피해·자료 왜곡” 지적

익산시가 삼기·낭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4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급증해 지역 갈등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62,000㎡ 규모로, 소각장과 매립장 등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15일 제2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다시 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46,931톤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시의회에 매각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 따르면 이수치에는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41,675톤이 포함돼 있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설치한 자는 3년 이내

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해야 한다. 또한, 2024년 3월 15일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산업단지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동일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된 폐기물 예상량(연간 40,838톤)을 기준으로 매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시설 설치에는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현재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4,700톤에 불과하다”며, “수익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외부 폐기물을 대량 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16년 해당 부지에 민간업체가 폐기물을 소각해 열을 발생시키는 열병합발

전소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익산시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는 2013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등 과거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대병원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 국책사업 선정

신생아 응급 원격진료 시스템 소아과 김현호 교수 연구책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25년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발됐다.

전북대병원은 신생아 원격진료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에 선정돼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된 47.5억원의 사업비를 운용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원격 진료 및 협진과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기술을 플랫폼 구현이 목표다.

또 경량화된 이동형 스마트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긴급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전북대병원으로 연구 책임자는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현호 교수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의 전문의인 김현호 교수는 국내·외 중환자 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에 대한 임상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술 개발 및 의료현장 적용 가능성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 연구 내용에는 △스마트 인큐베이터 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AI 기반 질환 예측 및 진단보조 시스템 △원격 진료 및 협진 통합 플랫폼 구축 △경량형 인큐베이터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에는 △전북대학교 △(주)비스토스 △(주)신씨엔씨가 참

여해 공공의료기관과 학교, 산업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료 거버넌스를 실현한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향후 전북대병원은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의료기관 대상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기술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지역중심 공공의료 혁신모델을 구축하는 등 신생아 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산·학·연·병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첨단 의료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밝히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스마트 의료로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이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현호 교수. <사진=전북대병원>



전주시, 한옥마을 내 정원조성·유지관리 협약 체결

(사)더숲등민관협력
전주동헌등에 정원 조성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방문객이 많이 찾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민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24일 사단법인 더숲과 공예품전시관, 전주시 녹지정원화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와 함께 전주한옥마을 일대의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옥마을 일대의 유휴부지에 대한 정원 조성은 사단법인 더숲과 초록정원사, 정원작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다. 공예품전시관과 한옥마을사업소는 정원이 조성된 공간의 일상적 유지관리와 시민 접근성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녹지정원과는 전체 사업 조정 및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

정원 조성 대상지는 최명희문학관, 공예품전시관 내·외부, 전주 동헌 등 한옥



전주시가 방문객이 많이 찾는 도심 속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민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조성 이후에도 기존에 운영되는 정원 해설사 프로그램과 연계, 해당 정원을 정원 산책 코스로 포함시켜 자연과 문화, 해설이 어우러진 정원 체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더숲은 도시 내 공공정원 조성, 유휴부지 녹지화, 녹지분야 유지관리, 초록정원사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정원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이영식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원을 일회성 조경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민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며 “시민과 기관이 함께 돌보는 정원 모델을 통해 도심 속 녹색문화 기반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군산대,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협약 체결

새만금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

국립군산대학교는 25일 해상풍력 관련 전문기업체 명일책임해양(주), ㈜변영중공업, (주)휴먼컴퍼지트, (주)삼일씨엔에스, ㈜티에스윈드와 ‘새만금 글로벌 해상풍력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추진하는 ‘새만금 ECO-UP’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분야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

국가연구소사업(NRL2.0)에 대한 상호협력 △말도 해상풍력 실증단지 활용 협력 △풍력발전을 위한 학생 현장실습 등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기술 자문 및 기술 지원 등 상호 협조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도모 등이다.

특히 명일책임해양(주)는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R&D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며, (주)변영중공업은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기술이전한 ‘펜타포드 석션버킷지지 구조물 및 설치방법’과 ‘해상풍력발전기용 지지구조물’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양봉오 총장, 미국 조지아대 방문

교수 학생 교류·공동연구 협력 논의

전북대학교 양봉오 총장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해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했으며, 미국의 선진 대학 및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을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 중 양 총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했으며,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했다.

특히 미국의 명문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를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푸드테크,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양 대학 간 교수·학생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교 협약(MOU) 체결 가능성도 모색했다.

또한 이어진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와 LA 한인상공회의소의 현장 미팅에서는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추진력 확보한다

찾아가는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지역 지원청 방문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5. 찾아가는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지원청 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일 순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정읍, 17일 무주, 21일 진안, 24일 임실에서 진행됐다.

이어 29일에는 완주, 5월 13일 남원·



장수, 20일 김제, 22일 부안, 23일 고창 등 5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올해 전북 유보통합 핵심 정책을 안내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현황 △영유아학교 개별기관 운영 △영유아학교 특색사업 운영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치원 3개원,

/최성민 기자

전북학비연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정부서ül청사인근단식농성돌입”

전북학비연대규직연대회의가 저임금 구조 해결 등을 요구하며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북학비연대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절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행사하면 탄압을 받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부서ül청사 인근에서 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며 “농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끝장내고 ‘사회 대개혁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해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 △비정규직 문제 및 저임금 구조 해결 △여성노동자 저임금 구조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체계 강화 및 교사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사교육 컨설팅 증가 △출결 처리 업무 과중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부담 △공공 시간 운영의 어려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과다 등 5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먼저 사교육 컨설팅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교사 역량을 높인다.

출결처리 업무 과중 문제는 나이스 출결 시스템을 개선해 대응 중이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는 미이수(예정) 학생에 대한 예방·보충 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 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사업’도 지원했다.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컨설팅과 교원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감염병을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올바른 손씻기 6단계



그거아세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비누를 사용해야만 없앨 수 있어요!!

진안군 보건소



30초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아이들의 말 없는 외침” 익산시, 아동권리 캠페인

익산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시청 1층 로비에서 아동권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있다.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실제로 들은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어른들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적 상처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전시장에는 아동권리를 쉽게 설명한 안내문과 전시 내용을 담은 책자도 함께 비치돼, 시민들이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동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전시를 관람한 한 시민은 “별 뜻 없이 했던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위생해충 꼼작마’ 익산시, 여름철 방역본격 시동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역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24일 보건소에서 ‘위생해충 방역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비롯해 29개 읍면동의 방역 담당자·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앞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해충의 특성에 따른 방제 방법과 올바른 살충제·방역장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해 유충 구제 활동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의 방역 활동을 위해 장비와 약품 배부도 완료했다.

29개 읍면동도 하계방역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오는 11월까지 취약지역과 위생해충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진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는 오는 5월 9일까지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 교육’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퍼포먼스 디지털 마케팅’은 광고비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매출을 끌어내는 마케팅을 말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예비)창업자에게는 필수적인 역량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참여자들의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론 교육 ▶ 후속 멘토링 ▶ 마케팅 지원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론 교육은 5월 14일~15일 이틀간 진행되며, 연 매출 80억 원 규모의 기업 대표가 강사로 나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뜰 창업지원팀이나 군산시 청년뜰 누리집(http://gsyouth.or.kr/)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빅데이터로 시민 삶 연결

인구부터 버스노선까지 현장 정책 수립 자료 활용

익산시가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강화를 위해 ‘2025년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올해 통신사와 카드사, 은행, 신용정보기관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시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주요 분석 과제별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향후 정책 활용과 행정 개선을 위한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 부서의 16개 핵심 분석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분석 대상은 인구·관광·교통·소비·복지·주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별·시간대별 생활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최적지를 도출하고,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객의 연령·지역·체류시간·소비 성향 분석을 통해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11일 2025년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익산시>

정이다.

또한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 이용 실태와 소비계층별 효과 분석, 지역 음식점소 소비패턴과 외지인 선호 음식 분석을 통해 음식관광 콘텐츠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버스노선별 승하차량 분석을 통한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불법 주차장 단속 효율성 개선 △주차장 수요공급 현황 파악 △공동주택 매매가 추이 분석 등 다양한 과제들이 추진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전면 도입

신호 자동 제어 출동 경로 생명 ‘골든타임’ 확보

군산시가 관내 모든 급급 차량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100% 도입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출동 시, 긴급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녹색신호를 부여하여 출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해주는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말한다.

실제 시스템 도입 이후,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이 평균 30~4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차량 출동시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2023년 11월, 10대의 구급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군산소방서 관할 급급 차량 전체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고영숙 스마트도시과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 전면 도입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시민 체감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작동 시 일시적인 신호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군산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현안사업 현장 행보

스마트 축사자연휴양림 등 방문

이학수 정읍시장이 농축산업과 관광 자원의 발전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머무는 정읍’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정읍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첫 방문지인 ‘피그윌드’는 총 13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 양돈단지로 ICT 기반의 악취 저감·질병 예방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미래형 축산시설이다. 이 시장은 “미래 농업의 핵심은 기술과 환경”이라며 “피그윌드는 정읍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신태인·이평면 동진강



변 일대의 ‘만석보터 유채꽃 경관농업 조성지’에서는 봄꽃이 활짝 핀 경관을 살펴며 농촌형 관광 자원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농업은 생산을 넘어 경관과 문화, 관광과 연계돼야 한다”며 “주민 주도의 경관농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찾은 내장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겨울철

결빙 우려가 있는 오르막 도로의 제설, 배수로 정비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속의 집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리”고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시는 주요 사업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읍을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더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 위한 기업 간담회

일자리 정책·지원제도 논의

군산시는 24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군산 산업단지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커리어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를 포함해 14개 기업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 군산지청 △군

산시 △(사)한국커리어가 추진하는 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 의견 수렴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책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을 위해 지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린 토론이 오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A 기업 관계자는

“군산시의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더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라며 군산시에 의견을 전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의 인력 수요 및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의 일자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반영·검토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공당보리축제 20주년 개막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온 가족 즐기는 체험 축제

드넓게 펼쳐진 보리밭을 배경 삼아 제20회 ‘군산공당보리축제’가 <두근두근 스무 살, 공당보리 20주년>이라는 주제로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24일 개막됐다.

올해로 20돌을 맞는 ‘군산공당보리축제’는 2012년 시행되는 하곡수매제 폐지에 대응하여 전국생산량의 50%를 생산하는 한창쌀보리의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미성동 주민을 중심으로 2006년 시작됐으며 올해 20주년을 맞게 됐

다. 세부 행사로는 24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당노래자랑’ 예선을 시작으로 불거리·먹거리 6개 마당과 50여 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전시마당 △보리밭 사잇길 포토존을 포함한 포토마당 △농특산물 판매, 짬뽕라면, 수제 맥주 등 장터 마당 △그린 카페, 보리밭 힐링 워터 등 워터마당 △전통 놀이, 화분심기 등 놀이 체험당 등이 관광객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익산 광역교통 비전 제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4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메가익산역 제2혁신도시 유치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최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익산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최 전 차관은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의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도시 발전의 기회를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익산은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세종-익산 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제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최 전 차관은 “익산역 선상 및 광장 부지를 기반으로 광역환승센터와 공공업무시설, AI 창업센터 등을 조성하면 익산이 전주, 군산, 새만금, 세종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4~5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형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AI 창업센터 조성과 도심환공교통(UAM) 인프라인 버티포트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사업과 KTX익산역-새만금국제공항 철도노선 조성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익산은 전북을 넘어 호남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국토교통·도시경영 전문가로서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혁신허브 구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제안은 대광법 개정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라는 시의적절한 배경 속에서 익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

저연차 공무원 정책제안 플랫폼

군산시가 저 연차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반올림 5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3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출범한 ‘정책 반올림 5기’는 앞으로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시정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 반올림’은 임용 5년 차 이하

8~9급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실무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과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되는 군산시의 시정 혁신 모임이다.

올해 5기는 총 18명의 직원이 참여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 발굴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병행하며, 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양식장 수산물 의약품 지도·점검

정읍시가 양식장 대상 수산물 동물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

시는 24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

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양식장 20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는 수산물 의약품의 사용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보관 상태 등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의약품 10대 사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웰파크시티 윈윈 협약

전지훈련단 등 혜택 제공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대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대표 이종균)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을 찾은 전지훈련단과 체육행사, 자매도시 시·군·구 이용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대혜택 대상은 전지훈련·체육대회로 고창을 방문하는 체육단체와 자매도시 시·군·구민을 포함한 고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초청돼 참여하는 기관 등이다.

웰파크호텔&스파 할인혜택은 비수기, 성수기, 극성수기로 구분하고 이용인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스탠다드 트윈기준 정상가 28만원의 객실을 비수기 30일 이상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계(비수기) 전지훈련 및 3일 이상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고창을 찾는 대규모 체육단체와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을 찾은 전지훈련단과 체육행사, 자매도시 시·군·구 이용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고창군>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읍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에 조성된 국내 최대 복합 힐링 단지로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리조트로 고창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온천휴스파,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석정웰파크병

원 등으로 고창의 품격을 올리는 고창 웰파크시티 이종균 대표이사께 감사드리며 웰파크호텔의 오픈을 축하드립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발전 상호협력체계가 더욱 굳건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동참

“인구 정책 확대해 나갈 터”

정성주 김제시장이 2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급속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정 시장은 부안 영도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수와 충청북도 음성군수를 지목해 참여를 요청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김제시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예술회관, 5월 8일 연극 ‘사랑해, 엄마’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8일 오후 7시 30분 연극 ‘사랑해, 엄마’ 공연을 선보인다.

‘사랑해, 엄마’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홀로 시장에서 역척스럽게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연극이다.

본 공연은 2015년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앙코르 공연으로 이어진 흥행작으로 배우 조혜련이 연출과 동시에 엄마 역으로 열연한다.

특히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많은 관객들이 부안예술회관을 찾아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전석 만원이며 부안군민은 80% 할인돼 2천원이다. 좌석예매는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3분 농업뉴스’ 송출시작 군행사·소식빠르게 접한다

고창군이 농업 보조사업과 군의 주요 행사 소식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창군 3분 농업 뉴스’를 제작해 본격적인 송출을 시작했다.

기존의 문서 위주 홍보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영상 기반의 직관적인 콘텐츠를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정보 소외 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 영상은 별도의 고가 장비나 시스템 없이, 휴대용 USB에 담아 고창군 14개 읍·면 마을회관의 TV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고창군 3분 농업 뉴스’를 통해 정책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누구나 군의 행사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 고향사랑기부금 110만원 기탁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지안) 직원 일동은 지난 23일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11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LX부안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매년 부안군에 기부를 이어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

지안 지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년 꾸준한 기부로 지역의 미래에 동행해 주시는 LX부안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와 활력 있는 공동체를 위한 자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청년 주거비용 보조, 지역 생태 보전 활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활용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운영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함께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 후기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판소리 체합·창곡·고창 풍류·놀이 등 어우러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 좋은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 소리꾼에게 판소리 눈대목을 배우고, 무대에서 직접 실력을 펼쳐 장원의

로 선발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소리길 품로깁 탐험’은 전통 의상을 입고 신재효 고택과 판소리 공원을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과 XR 실감 콘텐츠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3일(오후 2~5시) 시작으로, 6월 7일, 9월 6일, 10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신유섭 (사)동리문화사업회 이사는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신재효 고택의 소중한 가치와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주거환경 토탈케어서비스’ 공모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 토탈케어서비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내·외부 수리 △생활 쓰레기 및 불필요 물품 정리 △위생 청소 및 소독 △

해충 방역 등 전문 인력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전북광역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주거환경 개선이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저소득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고창군이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신청을 5월 14일 고수환 산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현장)와 LH청야플러스(온라인)를 통해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문턱제거, 낮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자격은 만 65세이상[1960년4월18일(포함) 이전 출생]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모집되는 전체 128호 중 전여호수 18호(26㎡형 16호, 36㎡형 2호)와 예비호수 26

호(26㎡형 2호, 36㎡형 6호)이다.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호대상자, 이외 신청자는 3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현장접수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고창활산 관리사무소에서, 온라인 접수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LH청야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최종 당첨되는 8월 29일 오후 5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조상땅 찾기’ 신청 증가

최근 3년간 1,277여명 조상 명의 토지 확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제시(시장 정성주)의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77여명이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400여명이 조상땅을 찾는 셈이다.

시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2022~2024) 동안 2,759건, 9,264필지

의 조상땅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만 934건, 3,030필지의 토지 소유현황을 시민에게 안내했다.

‘조상땅 찾기’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처리된다. 전국 조화가 가능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김제시청 민원실 지적팀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서류 또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는 조상의 재산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이 망자의 명

의로 돼있는 경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해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은 행정에서 접근도 용이해져 각종 개발사업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김제시 공식SNS, 전단지과 포스터, 김제역 대합실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절반 가까이 가 실제 조상명의의 토지를 찾고 있다.”며 “행정과 시민이 윈-윈하는 유용한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개관 준비 착수

고창읍성서문앞한옥건물 내달입주자모집체험본격화

고창군이 고창읍성 서문(진서루) 앞 6동의 한옥건물인 ‘전통예술체험마을’의 개관 준비에 착수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위원회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7명의 위촉직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2년간 전통 예술체험마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은 고창읍성 서문에 조성된 한옥마을이다.

고창군의 다양한 무형유산과 전통예술 등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문화 집적공간이다.

제)고창문화관광재단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각종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5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예주간’ 행사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전통예술체험마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첫 걸음을 함께해주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통예술체험마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 고창군의 대표 문화집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의회, 현장 중심 행정 강력 주문

자연에너지파크조성사업등 사업추진현황점검논의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부터 부안읍을 시작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농어촌버스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터미널 인근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준비 현장,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사업의 테마와 체험 요소, 상징성 등이 부족



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제12회 부안마실축제’의 주무대가 될 해뜰마루 현장에서는 △먹거리 부스의 운영 및 배관시설의 철저한 준비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영구적인 시설 설치 고려 △보행로의 안전성과 통행 동선의 효율성 확보 등을 주문하며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군의원들은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현실성이 낮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례들을 지적하며, 공직자들의 업무방식과 행정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군민의 삶과 직접 맞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반값 월세집으로 청년 잡는다

‘전북형 반할주택’ 선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29년까지 단계적 공급

남원시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항교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인구감소 우려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북개발공사는 2031년까지 총 5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남원시는 공모 초기부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후보지 분석에 집중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지역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과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



남원시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항교동 일원에 청년·신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마련한다. <사진=남원시>

으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남원시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전국 최초로 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기회도 제공된다.

이러한 이점을 토대로, 남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민 대중교통비 돌려받는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추진 월 15회↑ 이용 일정비 환급

순창군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사용 실적에 따라 다음 달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환급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이며, 고속버스와 고속철도(KTX, SRT)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비율은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성인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은 30%, 저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K-패스 제휴 카드사(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중 원하는 곳에서 K-패스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전용 앱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korea-pass.kr)에 접속해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K-패스 고객센터,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 전년比 상승

부동산가격공시위 개최 교통접근성 개발수요 영향

완주군이 지난 23일 오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부군수 문성철)를 열었다.

이날 개별공시지가가 18만 2,127필지, 개별주택가격 1만 9,789호에 대한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또한 사전 가격 열람에 따른 주민 의견이 제출된 10건(토지: 9필지, 주택: 1호)의 가격 조정사항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완주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

비 1.08%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35% 상승하는 변동률을 보였다.

완주군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원주택 개발수요 등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으로 토지,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을 거쳐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완주군은 도내 타 시·군과는 달리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하

나의 팀에서 통합 수행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 간 특성 불일치 사항 등 공시가격 산정 등을 적극 대응해 적정하고 객관성 있는 공시로 가격 신뢰성이 높다.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호)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 처리 후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도심에 ‘대형 꽃 춘향이’ 활짝

춘향제 꽃 경관 조성 완료 대표 랜드마크·7개 포토존

남원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심 전역의 꽃 경관 조성을 마무리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요전번 꽃단지 내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해 춘향제의 상징성과 예술적 감각을 겸비한 대표 경관 랜드마크를 완성했다.

아울러 폐추니아, 메리골드, 루피너스 등 약 23만본에 달하는 봄꽃을 식재하고, 미라볼 및 꽃 조형물, 꽃 화단을 함께 배치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심 전역에 꽃 경관을 조성하고 7개 포토존을 조성했다. <사진=남원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승사교 유희부지 내 3ha에 달하는 유채꽃 등 군락을 중심으로 포토존, 남원시 관광캐릭터 향이·뽀이 조형물,

등 총 7개소의 포토존을 조성, 남원을 찾는 이들이 기억에 남을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드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사진은 제94회 춘향제 드론제전 부스. <사진=남원시>

춘향제 관광객 남원 드론 만난다

춘향제 드론홍보관 운영 다채로운 체험·이벤트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드론스포츠 중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드론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시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춘향제 기간 중 다채로운 홍보·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사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다. 이번 홍보관은 드론홍보존, 드론스포츠 체험존, 시민참여 이벤트존으로 구성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드론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드론홍보존’에서는 드론 기체 전시와 마스코트 포토존을 마련해 드론레이싱의 역동성과 시의 드론 산업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드론스포츠 체험존’은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이벤트존’에서는 360도 무빙카메라 촬영 체험과 타임스탑 이벤트가 운영된다. 참가자는 드론제전 굿즈, 기프티콘 등 소정의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춘향제 기간동안 체험형 드론 배송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쉼랜드 연수 프로그램 삶의 질 향상 ‘호응’

‘인생설계 직무연수’ 운영 건강·자산관리·체험 통합

순창군이 서울대와 함께 선보인 인생설계 연수 프로그램이, 퇴직 예정 교원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2025년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순창 쉼랜드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연수 장소인 쉼랜드는 복합 힐링시설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교육과 휴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수 및 워크숍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목받고 있다.

이번 연수는 퇴직을 10년 이내에 앞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순창군이 운영에 협력하고 있다.

연수는 기수별 57명씩 총 228명의 교원이 참여하며,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건강, 자산관리, 법률, 힐링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순창군의 대표 명소인 강천산 트레킹, 관광지 탐방 등의 활동도 연수에 포함돼 있어, 교육과 힐링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보조금 집행 투명·효율 역량 강화

담당공무원·민간사업자 대상 ‘보탬’ 시스템 현장 교육

완주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 활용 역량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군은 24일 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 ‘보탬’ 시스템 사용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

국지정보보개발원의 현장 방문교육으로 실시됐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과정과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보탬’ 시스템은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지방보조금을 자치단체 명의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 ‘선 집행, 후 지급’으로 변경해 투명성을 높였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금년도 군 예산의 46.97%가 보조금”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공모 당선작 전시

김영봉 작가 ‘오직 하나 뿐’ 도 명품관광지조성 일환

완주군이 2025년 공예품 공모전시 당선작 김영봉 작가의 ‘오직 하나 뿐’이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리고 있다.

상반기 공예품 공모전시는 ‘폐자원의 변신, 명품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열렸으며, 여은희, 김영봉 작가가 선정됐다.



이번 김영봉 작가의 전시는 ‘악의 꽃-여은희 작가’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6월 말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다시왔나 봄’으로 중·노년 마음 건강 챙긴다

순창군이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갱년기와 노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12명을 대상으로 ‘다시왔나 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5월 2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한 두뇌 건강 분석과 결과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 예방수칙 교육, 다양한 심리지원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꽃차 소믈리에 과정도 포함돼 참가자들이 직접 꽃차와 티푸드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생태교란어종 수매로 하천 살리기·어민 소득 도움

남원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외래어종(블루길, 배스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요 하천 등에서 서식하는 외래어종을 어업인과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매해, 토착 어종 보호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수매사업에서는 총 약3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 감소한 실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와 비교하면 토착 어류의 서식 밀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매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생계 보조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생태 보전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수매단가는 kg당 4,000원으로 책정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위해어종 제거는 단기적 생태계 복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향후 하반기에도 외래어종을 추가 수매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산업발전 기원 기념식수

국내 수소용품의 법정검사 수행시설인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24일 센터 활성화와 완주군 수소산업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수와 함께 수소산업 발전과 상호협력에 관한 간담을 진행했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위한 시험동과 고객지원동 등이 구축돼 있으며 △수소용품 4종(수전해설비, 수소충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의 법정검사 및 성능 평가 △수소용품 창업기업 사무공간 지원 △해외수출 희망기업 해외인증 취득지원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동충동·명인치과, 치과의료 재능기부 협약

남원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와 명인치과(원장 정학현)는 24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돕기 위해 연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 위한 '치과의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치과 진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인치과가 자부담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원불교 부안군지구, 취약계층에 식료품 키트 전달

원불교 부안군지구(지구장 조인국)에서 지난 23일 부안군청을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료품 키트 40세트(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탁된 식료품 키트 40세트는 원불교 부안군지구와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마련한 것으로 김, 떡갈비, 통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불교 부안군지구는 2022년부터 매해 4월 28일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꾸준히 부안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식료품 키트를 기탁 해오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시 마동 새마을부녀회, 소외계층 80가정에 열무김치 전달

익산시 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수연)가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을 챙기 고자 마련됐다.

이날 부녀회원 25명은 열무김치를 정성껏 담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80여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불 피해 성금

적십자에 1,050만 기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회장 이선홍)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로부터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05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북지역 14개 시군협의회 자원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평소에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과 연대 실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왔다.

송현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잊따른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민주평통도 국민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에 1,350만 원 전달

3,700명 모금 동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지난 2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3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삼동회 산하 86개 시설 3천7백 명이 모금에 동참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유화영 이사장은 "삼동회는 원불

교 삼동윤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전해지는 마음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981년 설립된 삼동회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 근본이 하나이고, 전 인류는 한 가족이며, 모든 사람의 목적은 같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방사선, 정읍 어르신 장수사진 선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연구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정읍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한복·헤어·메이크업부터 고급 액자 인화까지 무상으로 지원했다.

촬영 대상자는 연구소 시민기자단 등 지역협력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진 촬영은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했으며,

한복 대여, 헤어·메이크업, 전문 촬영, 고화질 보정, 인화 및 액자 제작(11인치)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고 장수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기획됐다.

연구원 과학문화소통팀이 직접 촬영을 맡았으며, 완성된 장수사진은 고급 액자에 담겨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중장년 창업가들, 산불 피해 성금 기탁

익산시 중장년 창업가들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과 익산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건넸다.

익산시는 익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센터장 이효선)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고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창업센터와 임주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담

겼다. 기탁된 성금은 익산시지원봉사센터 및 사랑의열매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기술창업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효선 센터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함께 일구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안녕"으로 시작된 변화 완주군 인사캠페인 큰 호응

즐거움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현정)가 4월 한달간 벌인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친구야!'의 인사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인사캠페인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교사 간에 인사를 주고받으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활동으로 화산, 완주, 봉서중학교 등 총 3개 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고 즐거운 인사 시간을 만들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겨울 이불 무료 세탁 봉사

익산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덕)과 24일 지역 저소득 노인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뽕뽕뽕 이불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익산 북부관에 거주하는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대형 겨울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한 후 다시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 동향면 주민들, 영남 산불 피해 성금 267만원 기탁

진안군 동향면 주민들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동향면은 4월 한 달간 영남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한 가운데, 동향면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새마을·내유마을 주민, 각 마을 이장,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267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조양환 동향면이장협의회장은 "20년 전 동향면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수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황사 발생 대비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 하세요!



황사발생 전

예·경보 확인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요

실내 창문 점검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해요

외출 시 주의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간소매 의복 등을 준비해요

야외활동 자제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야외활동을 자제해요

황사발생 중

예·경보 확인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요

야외활동 제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제한해요
※ 강제·심각 단계 발생 시, 야외활동 금지

귀가 후 씻기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요

세척 후 섭취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들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해요

황사종료 후

실내 환기 및 청소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해요

〈一事一言〉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2)

유시민

작가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 자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누가 협박했는지 모른다. 매수했을 수 있다. 윤석열과 같은 극우적 사상을 지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성일 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렇듯한 증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당장 달라질 건 없다. 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지귀연 판사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둘 있다.

첫째는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 그는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현직 판사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해 봐야 헛일이다.

둘째는 국회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집행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 나중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귀연 판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헌법 제13조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로는 다시 기소하지 못한다.

‘설마!’ 라고 하지는 말자.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리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즉시 포기하리라고, 그래서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는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매주 한 번 공판을 해서는 새 대

통령이 취임하는 6월 4일까지 1심 재판을 끝낼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판사가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도 검찰이 한통속이고 대법원장이 봐주고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자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사가 법정에 서 신처럼 행동해도 되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게 될지, 된다 해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다.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내란죄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를 배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 지귀연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개인 지귀연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판사 지귀연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평한다.

다시 말한다. 나는 지귀연 판사가 법률을 위반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고 판단한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내란죄 재판을 진행한다 고 본다. 그리고 그가 국민 전체

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

어떻게?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이것 말고는 내 힘으로,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를 응징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많은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징계하면 지귀연 판사가 마음을 바꿀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징계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부지 매각 철회하라

익산시가 삼기·낭산 제3일반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애초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 매각될 경우 외부에서 반입되는 대규모 폐기물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제3일반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4천700톤에 불과해 매각 후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폐기물을 대량으로 들여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획은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익산시는 작년 1월에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 매각안이 부결된 사실을 무시한 채, 4월 15일 똑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시의회가 부결을 결정한 근본 이유는 익산시가 제출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46,931톤’이라는 수치에 타지역 폐기물 41,675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허위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결정을 추진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익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각을 주장한다. 이 조항은 연간 2만 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하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에게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매각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지만 제3일반산단은 2021년 기준 실제 발생량이 4천700톤에 불과해 설치

의무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법 시행 전인 작년 3월 15일 이전에 준공됐다 해도,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책임을 면하려면 환경부와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익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정된 연간 40,838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의견은 ‘협의·지정된 계획상’ 수치일 뿐, 현재의 실제 발생량은 무관하다. 지자체는 법 해석보다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익산시는 이미 2013년에도 민간 열병합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받아 사업을 철회한 바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 분양한다면 지역 환경 보호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납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 등으로 이어진 익산의 오랜 환경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역사 앞에서 익산시가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민간에 부지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일이다. 익산시는 법적 해석과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우선 환경부와 협의해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요시선

노래 / 김남주

이두메는날라와 더불어
꽃이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되자 하네

불이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되자 하네

이산골은날라와 더불어
새가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윗녘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되자 하네
이들판은날라와 더불어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고을은
반란이되자 하네
청송녹죽(靑松綠竹)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되자 하네 죽창이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1973년 구속되어 전남대에서 제직당한다. 출소 후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젓터미’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출간했다. 1994년 책장암으로 사망,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됐다.

| 독자광장 |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최전선,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구급 출동을 하는 구급대원이자, 동시에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는 구급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보다 더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노력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 멈춘 환자, 심폐소생술 무조건 무조건이야~”

심장이 멈추면 뇌와 주요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가 4-6분 이상 지속되면 뇌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소생률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산소방서 한 구급대에서 출동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지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으며,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가 쓰러진 채 이상한 소리

를 내자 옆에 있던 환자의 가족이 상황을 확인한 후 주저하지 않고 평소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심폐소생술과 신속한 병원 이송 덕분에 무사히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전에 나서기는 어려워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용기는 아는 것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심폐소생술을 단순히 글이나 영상으로만 배워서는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이론으로만 배우고는 실제로 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소방서는 다양한 장소와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시민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이병생 소방장

문화재열전



전두산마애여래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 지정일 - 2003년 5월 16일

- 소재지 -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산102-4번지

- 시대 - 고려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010-945-9400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말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노란 물결 따라 걷는 봄날 정읍 고부천 유채꽃길서 쉬어가세요

강변 따라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길 나들이
꽃길 곳곳 포토존 설치 특별한 추억 남겨

정읍시 고부면 고부천이 활짝 핀 유채꽃으로 물들며 봄을 맞아 색다른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은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이 강변을 따라 노랗게 물들이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만들어 낸다. 특히, 고부천을 따라 조성된 꽃길은 잘 정비된 산책로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봄나들이를 선사하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에서는 노란 유채꽃이 양쪽으로 펼쳐진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또 꽃길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

억과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은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유채꽃길이 강을 따라 아름답게 곡선을 이루며 자연과 어우러져 한층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시 관계자는 “고부천 유채꽃길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며 “이번 주말, 정읍 고부천 유채꽃길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